



東大新聞 發行所 東大新聞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길26번길 100-715

보기에 예쁘고 시원스런 꽃이 빛깔만 곱고 향기 없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듯이

# 부정비리 부정집권 군부독재 타도

## 총선 대책 및 평가대회 등 잇달아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민주정의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부정비리 부정집권 군부독재 타도'를 주제로 한 총선 대책 및 평가대회 등 잇달아 열렸다.



민주정의당 총선 대책 및 평가대회에 참가한 유진우(가운데)와 김원웅(왼쪽) 등.

### 법국민적 투쟁이도 결의 퇴계로서 가두시위 등 벌여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민주정의당은 3일 서울에서 열린 '부정비리 부정집권 군부독재 타도'를 주제로 한 총선 대책 및 평가대회 등 잇달아 열렸다.

# 民族東國 60년 개교 2주년

## 오는 6일 중앙당서 기념식 가저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민족동맹은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린 '부정비리 부정집권 군부독재 타도'를 주제로 한 총선 대책 및 평가대회 등 잇달아 열렸다.

# 수습기자 추가모집

- 1. 모집인원: 서울·경주캠퍼스 약간명
2. 응시자격: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제출서류: 본사소정양식 1부, 명함판 사진 1매(본사총무부 및 학생회관 수위실서 배부)

# 전방입소후 자전 퇴소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전방입소후 자전 퇴소 관련 소식입니다.

# 포수 혐의회 창립 '우산'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포수 혐의회 창립 '우산' 관련 소식입니다.

# 부대 기자대회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부대 기자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 보리수

보리수 관련 기사 내용.

# 어려운 세상

어려운 세상 관련 기사 내용.

이시대의 지성을 찾습니다

# 韓國火藥그룹

한국화약그룹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채용인원 250명. 2. 전형방법: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3. 응시자격: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988. 8. 2까지 재대학원예정자 및 기타 전역자, 또는 1988. 9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社說

13대 총선일보

이제 13대 총선거가 임박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3대 총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3대 총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3대 총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정한 선거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높은 투표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들이 건전한 정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 우리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파를 뛰어넘어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예술전망만이 전부는 아니다

예술의 전망만이 전부는 아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술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기말 전환기의 한국 예술

민중예술의 평가절하 태도는 지양돼야 예술의 자율성보장이 인간살의 질 향상

민중예술의 평가절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회에서는 예술을 단순히 오락이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아,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김선호

김선호씨는 이번 기사에서 예술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예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인간살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東國漢學

무엇이 문제인가?

이 광고는 '東國漢學'이라는 학회나 기관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학회의 주요 활동과 목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가들의 책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예술이 단순히 오락이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 경우,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이 광고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철강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두레박 줄이 짧으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철강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다양한 철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文化 탐방

민중이 함께 가는 배운터

대중들을 의식화한 운동권의 인사로서 흡사하는 道徳으로서의 구성을 담당할 것이라 민중학교의 역할에 대해 밝힌다.

민중학교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서울민중연합(이하 「서민련」)의 부설교육기관으로서 분단을 합리화시키는 反통일적인 제도교육,

「反통일적인 제도교육에서 탈피,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실현해,

반민주적인 교육을 극복하고 민중주체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민중해방을 나아가기 위한 배운터의 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8일부터 강좌가 개설되었다. 시작 당시 강좌가 고충도 없지는 않았다는 민중학교는 기존의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12·16 대통령 선거권에 따른 노선의 차이로 민중련을 탈퇴하면서 해체되어 지난 3월 5일 새롭게 「서민련」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그 체제를 정비, 「서민련」의 5대 강령인 「민중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실현」, 「민중 주체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민중 생존을 위한 경제적 투쟁의 실현」, 「민중자존을 위한 교육·문화의 창달」, 「민중 주체적인 대중조직 건설」에 입각하여 그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강좌가 시작되는데 총16과로 구성된 강좌는 두달동안 계속된다. 현재 민중학교는 제4기가 진행중이며 오는 13일부터는 5기 강좌가 마련된다. 매 기마다 약 1백여명 가량의 다양한 수강자들이 열의를 갖고 강에 임하고 있는데 이를 수강자들은 강좌수료후 학우회를 구성하여 서민련회원으로, 혹은 조직내 운동인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민중에게 통일! 민중에게 해방!』 민중학교 (서대문구 용재동 소재)를 찾았을 때 강의실벽에 내걸린 슬로건이 먼저 눈에 띄었다. 『서민련 대상을 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교육으로서 민중학교가 유입한다』며 말을 꺼내는 정방이 (민중학교 사무처장)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민중이 통일의 주체자로서 세계하고 비운동권과 의식화되지 못한』

흥미있는 내용의 구성역속에 作家의 의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나 「내용없는 목소리」, 「목소리 없는 내용」이 아닌 「내용있는 목소리」를 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형

양현석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세계의 문학』 불꽃, 1988)는 그러한 여말이 제법 발휘되고 있는 소설이다. 『격동의 한해』였던 지난 한해,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었던 6월항쟁을 소설 속에 재현시키고 있는데 주인공인 윤석일이라는 記者를 통해 6월항쟁의 상세한 모습들과 당시의 정황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양현석작 <세계의 문학> 불꽃

이것이 신봉주의의 보수주의와 유해도 할수 없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양음이 있어, 자신의 율리시즘으로 뛰어난 작은 불꽃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더 큰 논리로써도 설명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석일은 『제도권기자』로서 온건한 지식인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스스로 「역사에 빚졌다」는 부끄러움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역사를 발견해온 죄인」이라 시인하고 있으며 가부대 걸기에 쓰러져있던 해

그동안 각 別로 개성되어 있던 강좌의 내용들을 대중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월30일까지 있었던 제1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도덕적 타위성」(박현제), 「도시민민중운동」(정동익), 「대중문화비판」(김정연), 「격변하는 국제정치」(유영래) 등의 강좌가 있었으며 2期

「남북한 통일론」(김낙중) 등이 개설될 예정인데 이렇듯 민중학교의 강좌는 사회·경제·정치·문화·역사·인

재 (경제평론가) 김금수 (노동평론가) 임현영 (문학평론가) 노준선 (통일문제연구가) 박영상 (사회학자) 김진경 (해직교사, 민교협) 김정환 (시인) 등 소위 각분야의 의식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대학생들에게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민중학교가 「민중의 실제와 역사의 주체」 민중임을 확인하고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중이 함께 가는 포괄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재야단체나 각 연구·문화단체 등에서 전방적인 민중교육강좌를 마련하여 민중의 의식강화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한국사교실」은 한국사학계의 심화와 대중화를 위해 오늘의 한국사학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개설되어 현재 5기를 맞고 있으며 한강사에서 「한길역사강좌」와 「한길 사회과학강좌」를 개설, 古代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구조를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反공해 청년교육강좌」를 통해 도시공해문제와 한반도내 1천1백여개의 핵무기배치, 8기의 핵발전소 보유등의 핵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인식,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諸公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민중을 강화하는 道場」

분들 다루고 있는 분야가 양하고 전반적이며 시의적절한 주제설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사진 또한 민중학교 교장인 이호재 (대교수, 사회학)를 비롯하여 유인호 (中大교수·경제학) 박현

해오소를 민중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민중학교 부설 「민중문화교실」에서는 「우리살아온 근세 1백년의 문화가 봉건문화, 식민문화, 분단문화로 교착」되었던 점들지

다. 즉 온건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계층이 86년에는 이호재, 김성수의 역할부분에 한계점을 갖던 그는 어느날, 지방취재도중에 시위대에 휩쓸려 버린다.

이후, 해린의 체포와 더불어 마지막 장면에서 『해린을 통해 석일은 온구주에 마신 리고 있는 한 젊은이의 주검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곧 「중요성 없는 이시대를 살아내기 위한」이 땅의 사람들에게 작자가 던지는 결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재형 <문학평론>

아울러 작자는 이 사회에 체중처럼 가라앉아 있는 모순된 현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처한 현실의식을 해린을 통해 드러내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린의 신념들은 곧 석일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적하고 「젊은 문화에서 깨어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공간」으로 각 강좌를 개설, 「탈출의 이해」(채희환), 「민중문화」(민지현), 「공공체놀이」(민지현), 「소집단연구운동」(이재호), 「문화혁명론」(김정환) 등 각분야의 여러분야에 관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여성문제, 등

민중문제 등 분야별로 강좌가 개설된 것이 다수이며 이러한 諸분야의 총체적 교육으로서 민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하겠다.

이러한 대중교육들은 고급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이나 소수 특별강좌와 달리 대다수의 시민·민중들을 위한 열렬한 공간으로서의 그 의미가 깊다. 현재 직장인·학생·근로자 및 지식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교육의 열기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임에 대한 한국사학계의 호응 속에서 민중들은 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감화시켜 嚴正의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역사진보의 주체자로서 민중을 조직화시키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도시민중 등 기층민중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인데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방이 「취약계층의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심도있게 강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결국 지금까지 대중교육강좌가 안고 있는 한계에서 탈피하여 건강한 생산의 「담양자인 기층민중들에게까지」가 범위와 확장을 꾀해 주 민중의 인식을 토대로 한 자주·민주·통일교육의 성립이 가능해졌 것이다. 아울러 민중주체의 성장을 위한 민중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더욱 성실하고 건강한 민중학교의 미래상을 조망해 본다.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이재형 <문학평론>

생활의 질

인간사회에서는 언제나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하여 발전지향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복지나 생활의 질은 사회적자원이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생활의 질이란 인간의바탕적인 생활의 질을 위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서적(情感情) 또는 認知的(認知的)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定義할 때 생활의 질의 향상은 생태학적 가족체계에서 제시

한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경제생활수준, 가족,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복지나 생활의 질은 사회적자원이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생활의 질이란 인간의바탕적인 생활의 질을 위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서적(情感情) 또는 認知的(認知的)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定義할 때 생활의 질의 향상은 생태학적 가족체계에서 제시

한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경제생활수준, 가족,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복지나 생활의 질은 사회적자원이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생활의 질이란 인간의바탕적인 생활의 질을 위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서적(情感情) 또는 認知的(認知的)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定義할 때 생활의 질의 향상은 생태학적 가족체계에서 제시

한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경제생활수준, 가족,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복지나 생활의 질은 사회적자원이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생활의 질이란 인간의바탕적인 생활의 질을 위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서적(情感情) 또는 認知的(認知的)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定義할 때 생활의 질의 향상은 생태학적 가족체계에서 제시

한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경제생활수준, 가족,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복지나 생활의 질은 사회적자원이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생활의 질이란 인간의바탕적인 생활의 질을 위한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적·사회심리적 환경조건과 이러한 환경조건에 대한 정서적(情感情) 또는 認知的(認知的) 평가에 의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이라고 定義할 때 생활의 질의 향상은 생태학적 가족체계에서 제시

한 가족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의 질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경제생활수준, 가족, 주거환경, 영양 및 건강, 여가활동 등은 가정학의 주요 연구과제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심리적 만족추구가 곧 가정관리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가정의 생

활의 질에 관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물질적 자원공급수준이 생활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를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목표가 되어 있다.

문화탐방

『햇빛』재공연

극단 현장에서는 지난 3월 민족극 한마당에서 공연하였던 박인배주연·연출의 『햇빛』 공연을 신촌 청파소극장에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재공연한다.

『말뚝이』공연

경주 마당극회 「두두리」에서는 노서리 고분공원(시민공원)에서 오는 5일, 8일, 14일, 15일 4일에 걸쳐 오후 4시 하루 1회에 한해 마당극 「말뚝이」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춤극, 개사극 등 노동자문화활동의 성과들을 모은 것으로 인천동구의 노동자모임에서 10여차례 이상의 공연을 계속하여 역동적이며 현장감의 분위를 더욱 세밀하게 묘사한 노동현실의 생생한 표현 작품이다. 공연시간은 오후 5시, 8시 하루 두차례씩.

상설국악공연

국립국악원에서는 우리 교유의 가락울림리 알려고자오는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사초중 국립국악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악공연을 한다.

이 공연은 일반인과 학생의 국민들이 국악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할수 있도록樂·歌·舞 일체의 종합적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며 우리

문화탐방

서울윈드 앙상블 초청 공연

본교 학생처에서는 재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윈드앙블 관악단 「서울 윈드 앙상블」을 초청,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중강당에서 공연한다. 입장료 무료.

「말뚝이」공연

경주 마당극회 「두두리」에서는 노서리 고분공원(시민공원)에서 오는 5일, 8일, 14일, 15일 4일에 걸쳐 오후 4시 하루 1회에 한해 마당극 「말뚝이」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춤극, 개사극 등 노동자문화활동의 성과들을 모은 것으로 인천동구의 노동자모임에서 10여차례 이상의 공연을 계속하여 역동적이며 현장감의 분위를 더욱 세밀하게 묘사한 노동현실의 생생한 표현 작품이다. 공연시간은 오후 5시, 8시 하루 두차례씩.

상설국악공연

국립국악원에서는 우리 교유의 가락울림리 알려고자오는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사초중 국립국악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악공연을 한다.

이 공연은 일반인과 학생의 국민들이 국악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접할수 있도록樂·歌·舞 일체의 종합적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며 우리

문화패 창설

경상대에서는 무역·경제·

동악광장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동악광장은 각종 알림과 소식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충실한 게시판이 되어주는 열렬한 공간입니다. ...





진실의 말 자유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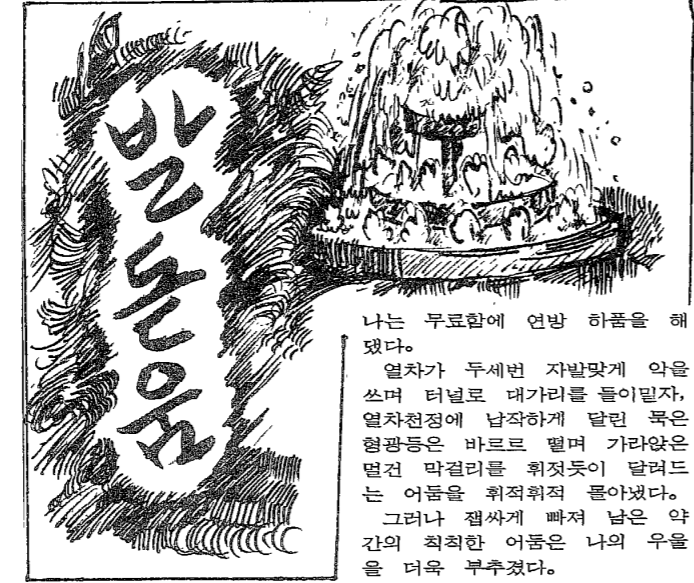
신경림 작  
본교 동문인 신경림씨(영문과 4)의 에세이「진실의 말 자유의 말」이 문학세계사에서 간행되었다. 「절은날의 초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이웃·고향·뿌리」 「강마을 사람들」 등의 5편을 엮은 이 책은 270면·3천원이다. <문학세계사>

한국 화업사상사 연구

본교사학회 編  
신라시대에 전래되어 원효와 의상에 의해 융성된 화엄종에 대해 그동안 화계에서 발표된 화업사상관계논문들을 수록한 이 책은 신라화업사상의 주류와 비주류와의 관계, 신라화업의 계보와 사상, 그리고 신라종교 전제화권에 이념적 바탕이 된 화업종에 대해 비판적인 새로운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사> 445면·8천5백원

계단과 날개

김민우 작  
4·19를 주제로 한 김민우의 장편소설 「계단과 날개」가 책세상에서 간행되었다. 장편소설 「혼전」을 개작한 이 소설은 작가가 4·19 당시 직접 체험한 것을 소설속의 주인공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4·19와 문학적 승부를 통해 참된 작가적 자유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책세상> 195면·2천5백원



실비가 간간히 내리고 나면 제 절은 늘 새파란 빛으로 시작되었다. 캄캄한 잠자던 개나리와 벗꽃이 알뜰알뜰 자갈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는 가슴에 먼지처럼 내려앉은 열등과 의로운 싸움질을 되풀이했다. 난 소중한 절을 지키고도 항상 마음이 고향했다. 오늘도 그랬었다. 나는 우물쭈물고, 그런 손맛을 잊기위해 기차를 타고 햇빛마저 시들한 황량한 도시를 두각정 떠났었다. 한참을 어디론가 달린 열차는 끝인점을 눈앞에 둔 마라톤 선수처럼 숨을 헐떡이며 지쳐있었고, 신록앞에선 늘 마음이 편안해

아리산 등정기

자유종곡에 위치한 3천9백97미터의 옥산봉을 등정하기위해 지난 8일 한해시(인문대·국문4) 대장과 함께 서둘러 출발했다. 4월15일 금요일 맑음  
지난 8일 자유종곡 대북에 도착해 각기관을 방문한 후 드디어 오늘 출발, 대중 그리고 일일단 후수를 거쳐 중식을 한 뒤, 다시 가의로 되돌아 나와 아리산 4월16일 토요일 호립  
반세 되돌이던 자기처럼 따분인지 새벽 3시에 기상한다. 4시에 출발, 동포산장을 거쳐 탐방가안부(2천5백미터)에 도착, 아직 미명인 아침이 깔려있는지라 계속 땀을 끼고 산행을 한다. 본격적인 등산길은 바로 이곳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피곤함을 느끼고 있으니 어느덧 은매리와 한대림이 갈리우는 3천미터 경계표지판위에 올라서 있다. 8시쯤 배운산장(3천5백28미터)도착, 뜨거운 홍차한잔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뒤, 길옆 바위를 쉽게 핀 에델바이스와 더불어 산행의 즐거움은 며칠만 간다. 3천미터를 지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던 기구가 정상직하 부근에서부터 급변하기 시작, 갈 바위를 동반한 비로 내리는 걸음을 더디게만 한다. 10시44분, 여기는 극동의 최고봉인 자유종곡의 옥산봉, 해발 3천9백97미터의 정상은 10여명 남짓한 일행이었고, 대북을 그리워하는, 작고한 우우일 갈참원정(서예가)의 3미터짜리 홍상이 중풍 대북을 향해 우뚝 서 있다. 「4천미터공적」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옥산의 높이를 그렇게 부른다. 사흘행영을 마치고 다시 배운산장으로 내려와 하산을 준비한다. 4월17일 일요일 맑음  
아침 5시30분 기상, 모처럼의 낮게 식사를 한뒤 멀리 옥산 주봉과 원쪽의 북봉에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을 고했으며, 자정을 출발, 아리산으로 향한다.

저서 마치 남은 열차의 뜰에 유리창의 열거거리는 소리와함께 어우러져 흔들릴때 그 흔들림을 즐기며 달콤한 졸음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해나한 기분이었다. 나는 날카롭게 내려꽂히는 루수의 직구들을 멍하게 받아치는 야구선수마냥 우울함을 하늘높이 광광 쳐보았다. 자연의 신록은 한층더 시들한 냄새가 나지않았다. 갖잡아 들린 물고기마냥 그저 팔팔뛰는 생물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는 꿈을 상실한 탁한 밤새로 역경게 들진 못했다. 새로운 깨달음에 진저리가 났다. 문득 죽은듯이 열었던 문은 것들이 뜰지락거리며 발걸기어 나왔다. 허우와 공하, 나태와 무

이시대 최고 엘리트집단으로서의 「대학」내에서 대학생들이 열어나가는 「대학문화」는 그동안 실로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흔히들 농담조로 이야기하듯, 30년 걸리는 한세대의 의미기호 사이에는 석달로 줄어지듯이 대학문화의 담당자이자 향유자로서의 대학생의 의식의 변화는 갈수록 빠른데 반대로 온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학문화는 한 학생으로서 그시대의 정수를 느끼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C.C (Campus Class)

노가리 안주가 판치는 우리들의 소박한 주안상을 위하여

들의 새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속제>나 <서활활동>,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파급되고 전달된다. 예전에는 그나마 공동체적인 모습에서 발견되는 한가닥의 낭만, 한가닥의 해학을 느낄 수 있었으나 어느때부터인가 고급인력의 양산이라는 현실속에서 대학가 풍속도는 고도로 발달된 기구의 풍속도로 변해버렸다. 전자오락에서 열심히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의 모습은 이제 구태의연한만큼 흔한것이 되어버렸고 카페문화와 소주, 마걸리대신에 자리한 매주, 안주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마이카후세에 맞춰 자기용과 풍요로운 일부 고급유한족(?)들에게 어느학교에서든 총화생에서 계몽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또한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따랐던 「오조음의 대학가」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고급화 추세속에서 예전의 낭만을 잃어가고 있는 지 오래이다. 특히 학업

본래 등산계획은 2월달로 예정했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진행된 겨울산의 진마를 못 보지 못한 채 이번 등반을 맡아지게 되어 한편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따금씩 펼쳐질 거대한 천 봉우리를 위하여 접어 두기로 한다. 비록 3일간의 등정, 4천미터급의 작은 봉이지만 지열과 현기 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검토의 미비, 장비점검과 하중분배에 따른 개인장비의 간소화, 고산에서의 무리한 운동속도, 식단적의 문제점과 해원정에서의 식량준비연구 등등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지난날 15일부터 17일까지의 등정기를 대략으로 정리해 본다. 나날이 가속화되어가는 현대문명의 이기와 편리속에서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오르다면 어리석다고 웃을까?

기가치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꿈과 용기의 포용으로 나를 결박지는 신록의 계절이 가기전에 난 작은 새가 되어 마음껏 날개짓하며 포롱포롱 하늘을 날고 싶다

대가의 풍속도

속칭 <대가 풍속도>의 확실한 유려나 근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 사용하는 비형추선법·연애학 개론·농담패설(?) 등 그 유명한 몇개의 풍속도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요즘도 속제·MT·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맞아 또 다른 신속도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유행하는 신속도 하나만 소개하면 속칭 「소주 율령법」이다. 「소주 율령법」의 목적은 빠른시간내 친선도모-빠른 시간내 술값해결-빠른 시간내 2차를 위한 술값마련-빠른 시간동안 오락성 만끽-빠른 시간내 취하기

「노가리 안주가 판치는 우리들의 소박한 주안상을 위하여!」 김승호 <공과대 국민윤리학과>

최절의 눈에서 체념하며 자학했던 지난날이 바는 끝이 되어라 감개 절러졌다. 무가치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꿈과 용기의 포용으로 나를 결박지는 신록의 계절이 가기전에 난 작은 새가 되어 마음껏 날개짓하며 포롱포롱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나 나는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변신해 가는 성숙을 느

사람과 못마치는 사람은 슬레가 되고 벌금을 준다. 어느 정도 용이 들켜되거나 술이 오르면 방법은 더욱 극(?)에 달한다. 특히 동문회나 선구배 술자리가 될 경우, 일명 「후배의 지옥전선」이라고 불리는 색다른 방법이 추가된다. 선배의 경우 술자리 자신의 차제가 되면 술자리 자신의 특권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특권행사의 종류는 뭐로 (술병을 다시 거꾸로 돌리라는 뜻), 흥과 (열사랑은 통과하는 뜻), 계속 (계속 돌리라는 뜻)의 세 가지로 차례가 오면 자신부터 「사용 할수 있게 되어 후배로서는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만나는 수도 있다. 다만 이것도 재수일 뿐! 선후배가 사이사이 얽아 있으면 선배의 특권행사의 혜택을 자연 후배가 차지하지만 선후배가 따로 끼리끼리 모여 있을 경우 오히려 후배들끼리만 술병이 오고간다. 급기야는 의기양양한 선배의 술리로 게임은 끝나고 게임

소주올림픽 - 소주로 엮힌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 시도해

에서 열린 수일으로는 2차를 할 수 있다. 결국 게임 후에는 술배 한 안해본 사람이 없지 않겠다. 이 게임방식은 먼저 사회자나 술배를 정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친이나 차례를 정한다든 소주 한병을 한잔씩 돌리며 마신다. 자신의 앞으로 술병이 오면 자신의 잔을 비우고 술병은 옆 사람에게 주며 계속 돌리는 방식이다. 계속 술병을 돌리다 보면 마지막 남은 술을 마시게되

오쿠노 망언

황국사관을 응모하는 외국인력 사관을 늘어 놓았다고 일본공민동맹회에 보도되었다. 또한 그는 이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불구하고 중공측에는 사과를 하면서도 우리측에는 적 반항정적으로 비난을 하는 등 망언을 피할이 했다. 그후 일본의 집권 自民黨의 소장파인 명으로 구성된 「국가기본문제토론회」는 「오쿠노」 국토청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그들의 침략주의적 속성을 절감한다. 지난 86년 8월 「후지오」 (藤野正行) 前 外務상이 역사를 왜곡한 망언을 했을때 우리국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으며, 82년 역사교과서에서 외국사실이 전제졌을때

했다. 나는 꿈과 이상을 가졌다. 결심들린사람처럼 마구 퍼야했다. 내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풀이라도 씹어낼 용이 없었다. 삶의 패자는 결코 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꿈과 용기, 나는 회색빛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무가치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꿈과 용기의 포용으로 나를 결박지는 신록의 계절이 가기전에 난 작은 새가 되어 마음껏 날개짓하며 포롱포롱 하늘을 날고 싶다. <해>

선해근<법과대 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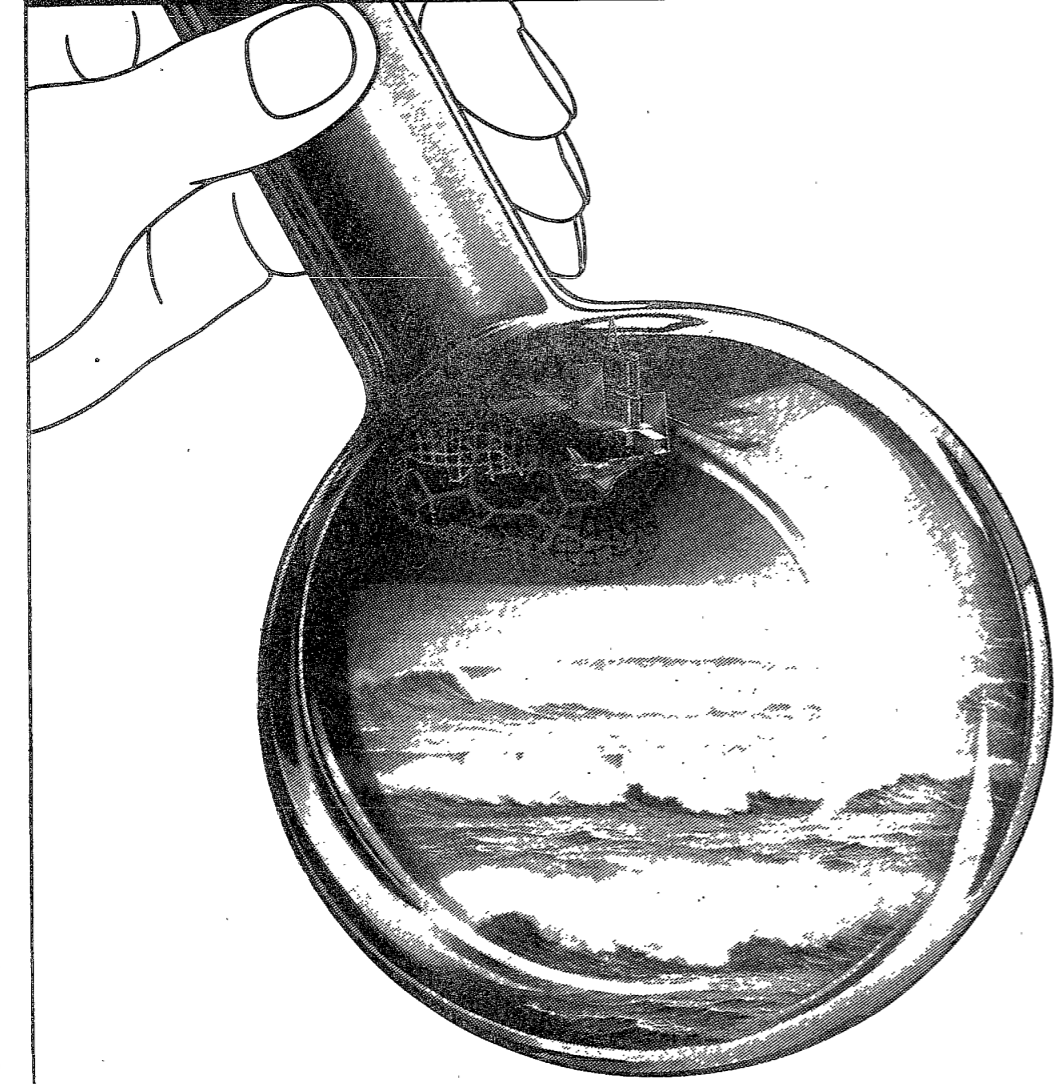
사람과 못마치는 사람은 슬레가 되고 벌금을 준다. 어느 정도 용이 들켜되거나 술이 오르면 방법은 더욱 극(?)에 달한다. 특히 동문회나 선구배 술자리가 될 경우, 일명 「후배의 지옥전선」이라고 불리는 색다른 방법이 추가된다. 선배의 경우 술자리 자신의 차제가 되면 술자리 자신의 특권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특권행사의 종류는 뭐로 (술병을 다시 거꾸로 돌리라는 뜻), 흥과 (열사랑은 통과하는 뜻), 계속 (계속 돌리라는 뜻)의 세 가지로 차례가 오면 자신부터 「사용 할수 있게 되어 후배로서는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만나는 수도 있다. 다만 이것도 재수일 뿐! 선후배가 사이사이 얽아 있으면 선배의 특권행사의 혜택을 자연 후배가 차지하지만 선후배가 따로 끼리끼리 모여 있을 경우 오히려 후배들끼리만 술병이 오고간다. 급기야는 의기양양한 선배의 술리로 게임은 끝나고 게임

대가의 풍속도

속칭 <대가 풍속도>의 확실한 유려나 근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직까지 사용하는 비형추선법·연애학 개론·농담패설(?) 등 그 유명한 몇개의 풍속도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요즘도 속제·MT·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맞아 또 다른 신속도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유행하는 신속도 하나만 소개하면 속칭 「소주 율령법」이다. 「소주 율령법」의 목적은 빠른시간내 친선도모-빠른 시간내 술값해결-빠른 시간내 2차를 위한 술값마련-빠른 시간동안 오락성 만끽-빠른 시간내 취하기

소주올림픽 - 소주로 엮힌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 시도해

에서 열린 수일으로는 2차를 할 수 있다. 결국 게임 후에는 술배 한 안해본 사람이 없지 않겠다. 이 게임방식은 먼저 사회자나 술배를 정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친이나 차례를 정한다든 소주 한병을 한잔씩 돌리며 마신다. 자신의 앞으로 술병이 오면 자신의 잔을 비우고 술병은 옆 사람에게 주며 계속 돌리는 방식이다. 계속 술병을 돌리다 보면 마지막 남은 술을 마시게되



人間・技術・未来  
新物質・新素材・新資源  
「新物質의 창조」  
부공해능약은 력키가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다음 표본은 부작용 없는 제3세대 항생제 - 력키는 고부가가치의 유일한 신물질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新素材의 혁신」  
종류도 다양한 력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하는 고기능 신소재입니다. 반도체, 항공기, 우주선에도 쓰이는 첨단신소재! 력키는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資源의 개발」  
력키의 화학기술과 유전공학의 만남은 동물성장 촉진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력키는 이제, 새로운 식량자원과 미래의 대체에너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력키